

2019년 미국 Shasta College Summer Program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캘리포니아 Redding
파견대학	Shasta College	기간	2019. 6. 24. ~ 7. 14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캘리포니아, 레딩인데 정말 시골이라서 외국인 친구들 차가 없다면 학교 내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건물도 거의 다 1층짜리고 주변이 다 들판이고 학교 내에서 사슴과 스컹크, 다람쥐를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평화롭습니다.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 오전 9-12시까지 홈페이지 만드는 법을 배우는데, 강사 분이 정말 친절하시게 잘 알려주시고 질문하기도 편한 분위기입니다. 학생들이 필드트립 일정 중 하나를 정하고 그것에 관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마지막 날 발표를 합니다. 준비물은 따로 필요 없었고, 강의실이 굉장히 추워서 겉옷 정도는 준비해가시는 게 좋습니다.
필드트립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필드트립)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여부 등 오후에는 필드트립을 항상 나가는데, 물놀이를 꽤 많이 가고 주변 관광지들을 갔다 옵니다. 햇볕이 엄청 뜨거워서 선크림 필수 지참이고, 수영복도 가져오는 것이 좋습니다. '오아시스 편 센터'는 20달러를 내야 해서 다들 안 가기로 결정했고, 워터파크에서 2-3인용 튜브를 빌리려면 6달러정도 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학교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 버스 안이 많이

	추웠습니다. 버니폭포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일정은 오랫동안 버스를 타야 하기 때문에 따로 겔옷이나 담요(각사에서 준비해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낮에는 건조한데 햇볕이 엄청 뜨겁습니다. 피부가 금방 건조해지고 갈라져서 보습제품을 챙겨오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쌀쌀하니 겔옷을 챙겨오는 것이 좋고, 실내는 에어컨 때문에 엄청 춥기때문에 긴팔, 긴바지를 챙겨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항상 학교 내에 세큐리티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안전을 점검하시고, 기숙사 내도 오셔서 확인해주고 가셔서 안전합니다. 마트를 가거나 하면 노숙자 분들이 보이긴 하는데 그 외에는 별일 없었습니다.
숙소	기숙사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전반에 대한 평가 옷장을 쓰고 싶다면 옷걸이를 챙겨 오셔야 하고, 빨래세제는 지원해주지 않아서 그곳에서 공구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보풀이나 먼지가 많이 붙을 수 있으니 빨래할 때 주의 하는 것이 좋고, 커먼스에 있는 자판기 옆의 동전교환기로 빨래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커먼스에는 영화보는 곳과 포켓볼 대 2개와 주방, 피아노, 탁구대, 닌텐도 스위치가 있어서 재밌습니다. 주말에는 학교에서 주는 재료들로 직접 해먹어야 하는데, 수저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챙겨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식사	학교식당 (0) 외부식당 (0) 기타 (0)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한국인들과 라면을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은 항상 카페테리아였고, 카페테리아에서 밥을 안주는 날은 커먼스에서 시리얼이나 부리또 만들어먹고, 외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외식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나가는데, 주말에 학교에서 주는 재료는 샐러드용 야채랑 닭고기, 샌드위치용 고기, 치즈, 여러종류 빵, 시리얼 정도가 답니다. 냉장고에 자신의 음식을 보관하려면 꼭 이름을 써놓아야지 안사라집니다.
교통	시내교통 관련 학교에서도 버스 타는 것을 추천하지 않고, 버스도 잘 안 다닙니다. 외국인 친구들 반 정도가 차를 가지고 있어서 나가고 싶을 때 부탁하면 태워줬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미안하니 음료수를 사주거나 선물을 줬습니다. 우버를 부를 수도 있긴 한데,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식비	약 370,000 ₩	물, 라면, 외식, 커피 등
개인 쇼핑	약 350,000 ₩	옷, 가방, 선물 등
비행기	1,550,000 ₩	
여행자 보험비	28,000 ₩	
합계	2,550,000 ₩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해외비행기 탄다면 추우니까 외투랑 긴바지, 두꺼운 양말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쇼핑을 많이 하게 되면서 현금이 부족해서 곤란한 사람이 많았는데, 대비해서 넉넉하게 환전해

오는 게 좋습니다. 물놀이가 많으니까 여자분들은 즐기고 싶다면 스케줄 표 보고 월경시기를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날에 애들이 서로서로 선물과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대비해서 편지지랑, 한국 과자 같은 것들, 선물 챙겨가면 진짜 좋습니다. 못 주고 왔는데 진짜 미안했습니다. 돌아갈 때 캐리어 무게랑 공간부족 때문에 고생할 수 있으니, 이런 거 생각하셔서 캐리어를 넉넉히 비워서 오시거나, 작은 캐리어나 수화물로 붙여도 되는 큰 가방을 챙겨오시는 게 좋습니다.

학교에서 큰 목욕타올 2개랑 수건 하나를 주는데, 부족하니까 수건은 더 챙겨오는 게 좋고, 옷장 쓰시려면 옷걸이를 가져가야 합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외국인 친구들이 우리를 잘 챙겨주려고 해서 너무 고마웠고, 생각보다 정이 더 많이 들 들어 헤어질 때 진짜 아쉬웠다. 홈페이지 만드는 수업도 처음에는 많이 어려워서 따라가기 힘들었는데, 강사 분이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셨고 나중에 친구들끼리 서로의 결과물을 보면서 뿌듯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터틀베이



주말에 외국인 친구 집에서 열린 풀파티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샌프란시스코, 케이블 타고난 후에



늦은 저녁에 같이 볼링장 감



버니폴에서 셀피